



# 나를 내려놓고 당당한 나로 거듭나는 사내강사 교육 - 2016년 사내강사 심화 1기 과정을 마치고



안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김민국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사내강사양성 심화과정 교육을 들었다. 2014년 안산센터 사내 강사 직원으로 선정되어 맨 처음 사내강사 입문과정을 들었고 입문과정을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신청을 받았다.

입문과정에서 기본 강의기법 및 PPT활용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면 심화과정은 본인이 기존에 해 왔던 강의를 직접 시연하면서 전문강사의 피드백과 교육생들에 평을 종합적으로 등도 수정해 나가는 심도있는 과정이었다. 동영상 촬영을 하여 본인이 하는 강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마치며 드는 생각은 사내강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보건관리팀 직원들도 꼭 들었으면 하는 강의였다.

첫날, 교육시작과 동시에 3분 자기소개를 발표했다.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각인 시킬 수 있는



## 2016 사내강사양성 심화과정

일정 | 2016.11.16(수) ~ 11.18(금)

장소 | 원주 치악산 호텔



대한산업보건협회

지, 제스처와 스타일, 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였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개를 하려니 말도 버벅거리고 어색한 제스처만 취하다가 3분의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 처음부터 상당히 민망했다. 업무성격상 교육을 많이 진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자리였다. 그 다음은 20~30분짜리 강의시연을 하였다. 가지고 온 교안을 바탕으로 시연하는 것이다. 이미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있게 발표했다. 시연을 마치고 강사와 교육생들의 강의 평가를 들으며 나의 단점을 발견했다. 예전 입문과정에서 한 자리에서만 강의를 해서 지적을 받았던 터라 그 뒤로 의식하며 움직였는데 그게 과해서 오늘의 지적사항이 되었다. 강의시연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대학로 공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날 강의 중 “공감”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교육생들과 소통과 공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강의라도 그 강의는 실패한 강의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말이었다. 나의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졌다.

둘째날, 강사께서 갑자기 단어 카드를 교육생들에게 나눠줬다. 그 단어를 받고 3분 동안 구성하여 그 단어에 관해 동료 교육생에서 스토리를 통해 알려주는 자리였다. 나의 카드는 ‘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앞뒤가 안 맞았다. 정말 기지가 부족한 발표였다. 결정적으로 그 단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했다. 코칭을 받고 이번에는 단어카드를 받자마자 바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단

사내강사 Heat-Up



어는 “절도”. 순간 ‘흠친다’는 절도로 착각했다고 고백하며 웃음을 선사했지만, 원래의 뜻으로 다시 해석해서 ‘절도’를 전달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조합해 발표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은 ‘슬라이드의 내용만 읽으면 안 되며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유연한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다.

마지막 날, 교육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20분 강의시연을 진행했다. 2일동안 배운 것을 되새김질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발표했다. 자세에 대한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으나 강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 받았다. 핵심에서 벗어난 많은 내용 등은 과감하게 빼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이번 사내강사 심화과정은 ‘나를 내려놓는’, 다시 말해 나의 나쁜 강의 습관을 노출시키고 고쳐나가는 교육이었다. 아프지만 성숙해 가는 교육이었다. 교육생은 총 8명이었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심도 있는 실습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내강사 심화 1기 과정을 마쳤다. 이제 어떤 강의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 또한 배운 것을 토대로 후배들에게도 알려주도록 하겠다. 교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부딪치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육이다. 많은 근로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강의하는 나를 상상해 본다. 🍷

